

[9월 3주차] 산업AI 주간동향 보고

<26.9.17. 한국산업지능화협회>

구분	26/9/3주 산업AI 동향
산업AI 관련 국내 정책 동향	· 지역 기업의 AI 전환, MAX로 앞당긴다 - 산업부, 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「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」를 개최하고 LG전자·삼현 등 제조기업의 AI 전환 사례 공유 및 지역 제조기업과 AI 기업 간 1:1 기술매칭 지원 추진 - 지역 기업의 AX 수요 발굴과 기술 컨설팅·매칭을 확대하고, 풀스택 AI 팩토리·제조 AI 파운데이션모델·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 및 자율제조 확산 지원 · 중기부·과기정통부, “피지컬 AI로 중소제조 현장의 미래를 연다” - 중기부·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'2026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' 지원대상 175개사 선정, 신규 솔루션 150곳 최대 5천만원·고도화 25곳 최대 1억원 지원 - 수산물 단가 예측, AI 화재 예측, 간병일지 자동화 등 서비스 현장 실제 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다수 선정,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AX 확산 본격화 목표
글로벌 산업AI 동향	· EU “AI 본격적인 규제 도입” vs 美정부 “기술혁신에 집중해야” - EU, AI Act를 중심으로 위험 기반 규제를 본격화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부 적용 시기를 조정하며 규제 속도를 조절 - 미국은 AI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두고 규제 장벽 완화 및 연방 차원의 일관된 AI 규제체계 마련 추진 · 트럼프 “AI, 中에 앞서야” 속도조절론 일축...시진핑도 ‘오픈소스 동맹’ 가속 - 美, 중국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 개발 속도를 늦출 의향이 없음을 강조, 중국 시진핑 주석도 AI 오픈소스 생태계 확대 및 브릭스 국가 간 AI 협력 추진 - 미·중 양국이 AI 개발 속도 조절보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AI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면서, AI 안전·규제와 기술 패권 경쟁을 둘러싼 글로벌 논쟁이 지속될 전망

1) [지역 기업의 AI 전환, MAX로 앞당긴다](#). 26.9.11. 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2) [중기부·과기정통부, “피지컬 AI로 중소제조 현장의 미래를 연다”](#). 26.9.7.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

3) [EU “AI 본격적인 규제 도입” vs 美정부 “기술혁신에 집중해야”](#). 26.9.14. 매일경제

4) [트럼프 “AI, 中에 앞서야” 속도조절론 일축...시진핑도 ‘오픈소스 동맹’ 가속](#). 26.9.14. 동아일보